

소중한 경영 기록의 寶庫

경영과 성공의 보물창고

류정상 사무관



차례

하나. 경영혁신 전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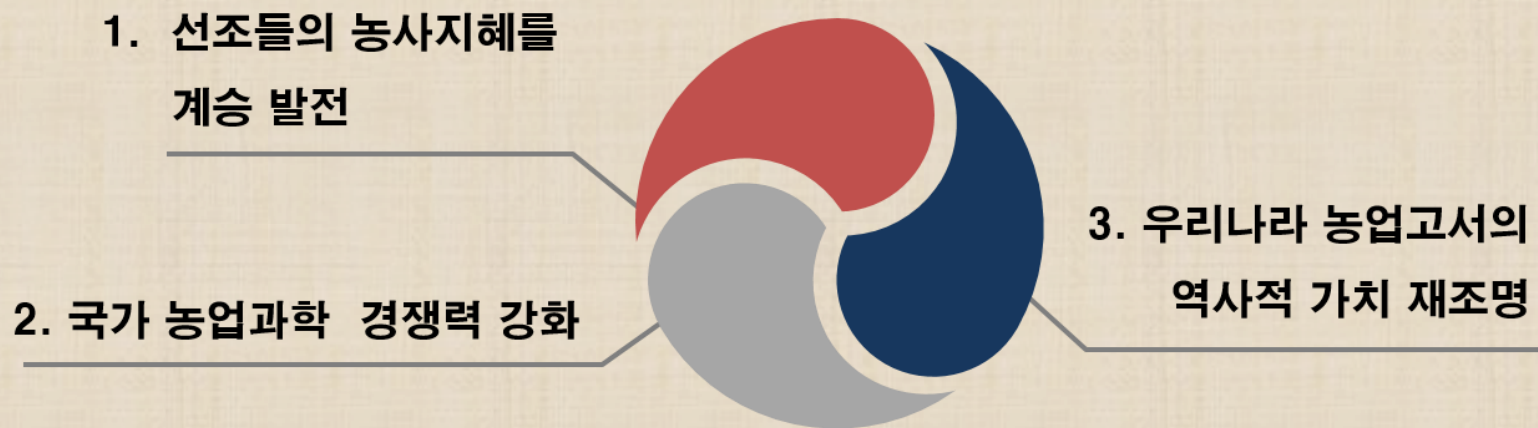
둘. 개화기능성 디지털원천기술추진사업

셋. 디지털 경영혁신사업

농업고서 국역사업



추진배경



- 건강한 식문화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 풍토에 맞는 전통농법 연구
- 한자로 쓰여진 농업고서의 특성으로 접하기 어려움



사업개요

- 대상자료
 - 고농서 『穡經』 등 총 57종
 - 개화기농서 『土地農産助詞報告』 등 46종
- 사업기간 : 2001년 ~ 2015년
- 사업비 : 총 1,776백만원
(국역비 1,219, 감수비 190, 발간비 367)





국역총서

| | 서명 | 저자 | 발행년 |
|----|--------|------|----------|
| 1 | 색경 | 박세당 | 1676 |
| 2 | 농정신편 | 안중수 | 1881 |
| 3 | 농정서 | (미상) | (미상) |
| 4 | 증보산림경제 | 유중임 | 1766 |
| 5 | 농가설 | 유팽로 | 1590 |
| 6 | 위빈명농기 | 유진 | 1618 |
| 7 | 농가월령 | 고상안 | 1619 |
| 8 | 농가집성 | 신속 | 1655 |
| 9 | 산가요록 | 전순의 | (1450년경) |
| 10 | 식료찬요 | 전순의 | (1460년경) |



중국농서 국역

| | 서명 | 저자 | 발행년 |
|---|------|-------|------------|
| 1 | 제민요술 | 가사협 | (500년대) |
| 2 | 범승지서 | 범승지 | (기원전 1세기경) |
| 3 | 농상집요 | (원나라) | 12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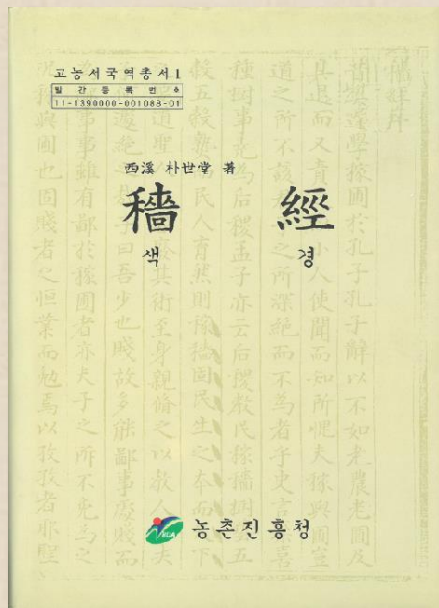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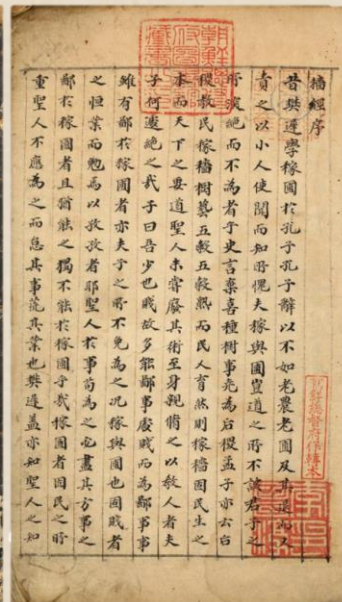
| | 서명 | 저자 | 발행년 |
|----|-------|---------|----------|
| 11 | 농정회요 | 최한기 | 1830 |
| 12 | 해동농서 | 서호수 | 1798 |
| 13 | 응지진농서 | (미상) | (미상) |
| 14 | 감저경장설 | 서경창 | (1813) |
| 15 | 향주소적 | (미상) | (미상) |
| 16 | 음식방문 | (미상) | (고종말기) |
| 17 | 주방문 | (미상) | (1800년대) |
| 18 | 규곤요람 | (미상) | (미상) |
| 19 | 월여농가 | 김형수,한응하 | 1861 |
| 20 | 고사12집 | (미상) | (미상) |

고농서 총서1호 『穡經』

• 穡經이란?

17세기 후반 박세당이 중국 원나라에서 편찬된 「농상집요」를 대본으로 삼고 자신의 농사 견문을 추가하여 편찬한 농서로 ‘농사에 관한 경서’ 곧, 농서(農書)라는 뜻

• 2001년 경기도 의정부시와 반남박씨 종가에서 재발간(500부)





고종서 총서8호 『山家料祿』

- 세계 최초의 온실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고증함
- KBS 1TV 역사스페셜(2002) 제작
‘한 겨울에 핀 여름꽃, 500년 전에도 첨단온실이 있었다’ 방영



-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
- 조선 전기 의관 전순의가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의서(醫書)
-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에 전면 홍보되어 3쇄 발간 (총 3,000부)

건강

2005년 3월 16일 수요일 가

고농서 총서9호 『食療纂要』

중증 식이요법 '식료찬요'

감기에는 끓인 파... 위장병은 순무가 좋아

정력보강 참새고기 기침·천식 잉어회

피부미용 굴구이 숙취해소 배춧국

를 먹으면 감증이 그치고 여혈을 없애준다.

■ 위장병=숙식(宿食·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소화시키려면 중합을 삶아 나오는 즙을 먹는다. 오장을 이롭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순무를 임의대로 먹는다.

■ 정력보강=양력을 더욱 세게 하고 기력을 북돋아 주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려면 정새고기를 임의대로 먹는다. 성생활을 도와주며 열백을 보하고 장위를 든든하게 하려면 양념을 넣은 계고기를 삶아 익힌 다음 국밥에 먹는다. 다 마늘과 같이

는 방법은 양어 1마리를 회로 만들어 생강과 식초를 넣어 먹는다. 마늘에 버무리 먹어도 좋다.

■ 요통=요통을 다스리고 남녀 간의 성생활을 원활하게 하려면 중합을 끓여 구워 나오는 즙을 먹는다. 허리와 신장을 윤택하게 하고 남성의 생식능력을 일으키게 하려면 황구(누른 개)에 산고기를 찌다면 피와 나삭

하러면 봉어로 회나 국을 만들어 먹는다.

■ 꽃이 만 나을 때=부인의 꽃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소 고로 국을 만들어 공복에 3~4번 복용한다. 또 노루 고기로 고깃국을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부인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위염=모과 큰 것 1개를 쪄고 국

제26156호 조선일보

조선 어의가 편찬한 첫 식이요법 '식료찬요' 한글로 나와

정력에 참새고기

숙취엔 배추씨 갈아...

감기에 파 끓여...

중풍·감기 등 '민간 치료법' 제시

'감기에 걸려 오한이 날 때는 파를 잘게 썰어서 탕으로 끓여 먹여라' '부인의 꽃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소고(牛高)로 국을 끓여 공복에 3~4번 복용하라' ...

조선 왕조 어의(御醫)가 편찬한 국내 최초의 식이요법서 '식료찬요(食療纂要)'가 농촌진흥청 연구진에 의해 한글로 번역돼 25일 공개됐다.

식료찬요는 조선 세종·문종·세조 3대에 걸쳐 어의로 활동한 전순의(全循義)가 임금(세조)의 명을 받아 일반 백성을 위해 1430년에 편찬한 식이요법서다.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통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책은 중풍·감기·천식·중양·임신병·소아병 등 45종의 병증을 수백 개의 증상으로 세분화 뒤, 175종의 식재료를 활용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엔 현대인들도 활용 가능한 처방도 많다. 먼저 숙취 해소 비책. '술에 취해 깨어지지 않을 때 배추씨 2홉을 잘게 간 다음 생수(아른 아른)에 끓여 우물물 1잔에 타서 2번 나누어 먹는다.' '주갈(酒渴·술을 마시고 난 뒤의 갈증)을 풀기려면 배추 2근을 삶아 국을 만들어 마신다.' '소와 불랑에 대한 처방도 있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으면 남은 음식을 붙여 태운 후 약 솥가락 정도의 남은 재를 술에 타 먹으면 숙식(宿食·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머물러 있는 병증)을 토하게 되어 차도가 있게 된다.'

'위가 약해 비만(痰滿·명치 밑이 가득하고 답답한 증상)이 있으면 생강즙 반 홉에 꿀 1숟가락을 넣고 달여 끓인다. 따뜻하게 3번 복용하면 즉시 효과를 본다.'

병을 앓은 뒤 허약해진 몸을 추스르는 데 요긴한 처방도 있다. '병을 앓은 후에 허로(虛勞·몸의 창기와 기혈이 허해진 증상)한 것을 치료하려면 5~7살 먹은 누런 소의 젖 1되와 물 4되를 넣고 끓여 1되가 되도록 한 다음 배고르면 조금씩 마시는데 10일이면 효험이 있다.'

피부미용을 좋게 하고, 남성의 정력을 보강하는 처방전도 있어 눈길을 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려면 방금 채취한 굴을 불 위에 놓고 불도둑 구운 다음 껍데기를 제거하고 먹는다.' '양기를 더욱 세게 하고 기력을 북돋아 주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려면 참새고기를 임의대로 먹는다.'

저자는 서문에서 "고인(古人)이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 먼저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을 우선하고 식품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약으로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식품에서 얻는 힘이 약에서 얻는 힘에 비하여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며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순의는 판서(判書)급에까지 오른 어의로, 의방유취 편찬에도 참여했지만, 문종의 승하로 이어진 의료과오의 책임 때문에 중죄(重罪)를 추궁당하는 국절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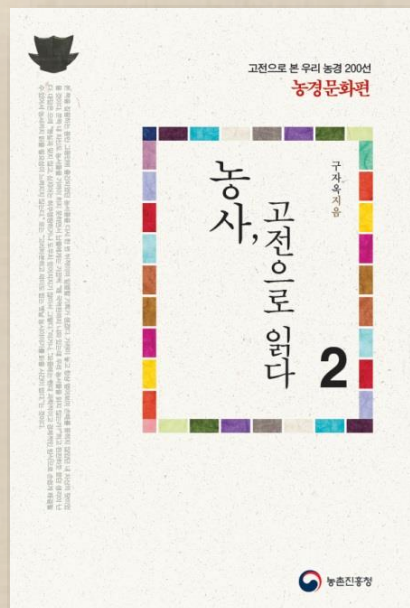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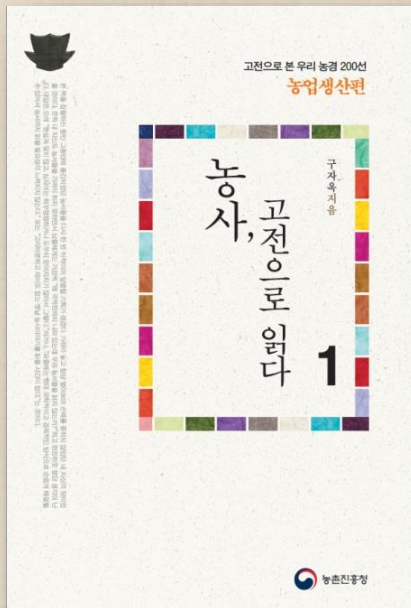
식료찬요의 한글번역본은 농진청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da.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단행본 검색을 선택한 후 '식료찬요'를 입력하면 된다.

김종수 기자 ● 호: 02-3800-3800



『농사, 고전으로 읽다』 편찬 (2016)

- 저 자 : 구 자 옥
- 구 성 (1권) 농업생산편, (2권) 농경문화편
- 주요내용 : 15년간 국역한 고농서 총 57종에 실린 선조들의 농사 지혜 중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발췌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





자유이용 개방 및 제공

원문공개로 대국민 활용 및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체 원문공개



자유이용 개방 및 제공

민간 출판사 등의 요청에 따라 국역고농서의 출판 또는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 및 제공



개화기 농업자료 디지털원문 구축



조선농회보

- 조선농회보란?
 - 일제강점기에 조직한 조선농회의 기관지
 - 농업전문 정기간행물
 - 1906년 제1호 ~ 1945년 제19호(총482권)
- 1980년대 일본 농림수산성 도서관에서 농업과학도서관 조선농회보 미소장본(일부 결호) 복사제본 수집





다카하시 노보루 육필원고 및 소장도서 수집 (2006)

- 육필원고 (총 29종)
 - 조사보고서 9종, 연구논문 13종, 기타 7종
- 소장도서 (총 16종)
 - 농업기술교재 8종, 정기간행물 1종, 기타 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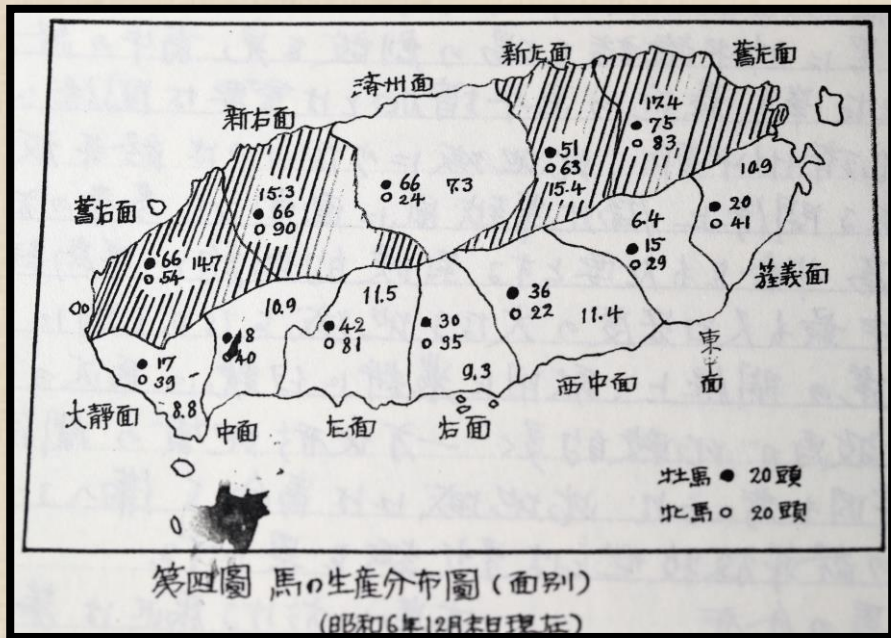
다카하시 노보루 (1892~1946)

- 동경제국대학교 농학부 졸업 (1918년)
- 유럽 및 미국 연구를 위한 출장 (1926~1928년)
-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서선지장장 임명 (1928년)
- 해방 후 한국에서 업무 정리 (1945~19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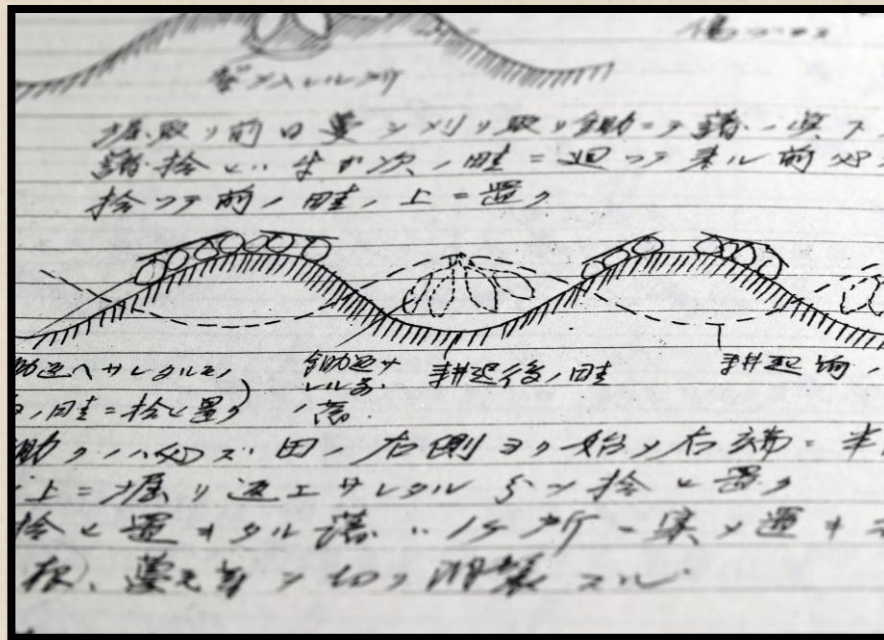
다카하시 노보루 육필원고 및 소장도서 수집 (2006)

02

개화기 농업자료
디지털자료원문 구축



제주도 말 생산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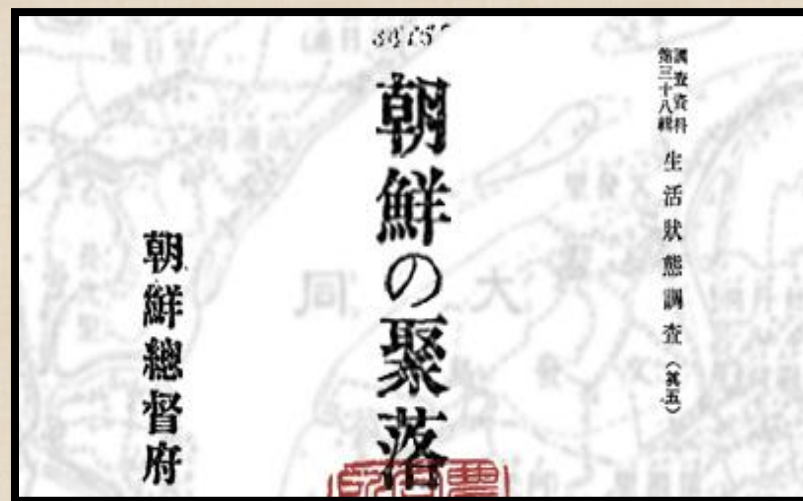


농사짓는 법



일본 농림수산물정책연구소 소장도서 수집 (2008)

- 일본 농림수산물정책연구소 소장 일제강점기 및 근대 조선 농업관련 영인본 도서 수집
- 『朝鮮ノ聚落』, 『朝鮮ノ米』 등 총 193권
- 소요예산 : 약 35백만원
- 희귀 중요자료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원문 및 메타 DB 입력 (2019)



히로시마 인권도서관 소장자료 수집 (2009)

- 수집자료 : 『조선총독부 관보』 (147권) 등 총 165종 695권)
- 소요예산 : 약 6백만원



수집자료 한국 운송 작업



히로시마 인권도서관

- 타키오 에이지가 설립한 개인 인권도서관
- 타키오 에이지(1931~)
 - 히로시마에서 활동하는 일본의 향토 인권연구가
 - 히로시마현 현립도서관 부관장 역임
 - 인권도서관 설립 운영

※기증자 및 후손 초청 감사패 증정(2009)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수집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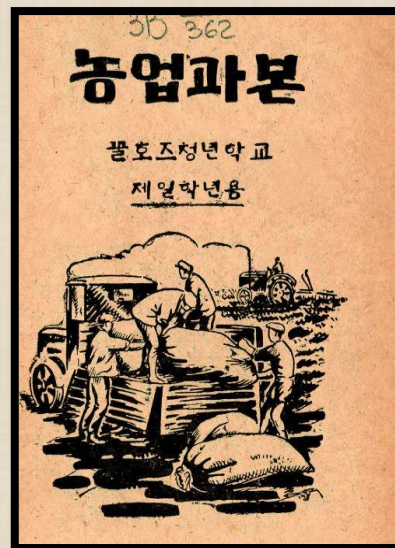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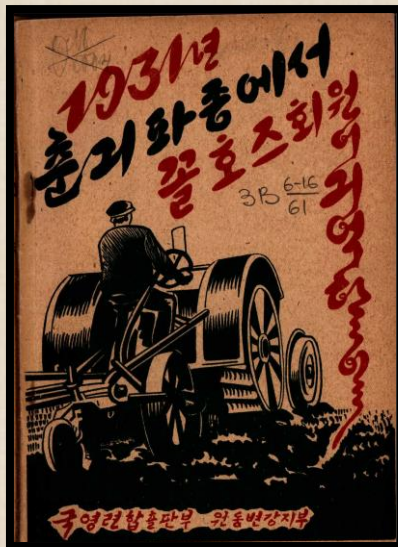
- 연도미상 포함 1659~1955년 농업관련 디지털원문
- 『農家集成. 全』 (1686) 등 총 85권
- 디지털 원문보기 대국민 서비스 제공





러시아 농업도서 한글판 수집 (2019)

- UC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도서 수집
 - 『1931년 춘기파종에서 꿀호즈 회원이 기억할 일』 등 총 58권
 - 디지털원문 DB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 제공
 - 도서 제본(총 3부) 후 보존 및 활용
- ※ UC버클리에서 수집한 러시아 레닌도서관 소장 일제강점기 한글도서 919권 중 농업관련 자료 PDF 파일 수집



디지털농업실록

디지털 농업실록

- 우리나라 근대 농업 관련 귀중본의 디지털 원문을 구축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ONE-STOP으로 접근
- 고농서국역총서, 개화기농서 등 총 8개 카테고리 구성

디지털 농업실록



러시아 발간 한글판 농업자료



일본인의 눈으로 본 조선 농업



고농서 국역총서



한국 개화기 농업연구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수집자료



국회도서관 수집자료



조선농회보(朝鮮農會報)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 전시된 전통농기구 140종에 대한 사진과 설명 DB 구축
- 교육 및 연구 등 다목적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도서관안내

농진청발간자료

소장자료검색

전자정보검색

열린광장

관련사이트

소장자료검색

통합검색 >

단행본 >

시험연구보고서(과제) >

학술잡지 >

DVD영화 >

선택자료 >

디지털농업실록 >

지자체농업정보 >

국회의원정책자료 >

고농사용어용례집 >

알기 쉬운 농업용어집 >

농업법률연구자료 >

디지털농업실록

공공누리 마크가 없는 자료는 권리확인이 필요하오니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행처로 협의요청 바랍니다.

· 우리나라 전통농기구

알리기

심기

기르기

돌이기

갈무리

가내생산

같이

· 따비

· 굽쟁기와 명에

· 벚과 보습

· 보습

· 거리쟁기와 명에

· 쟁이

· 화기래

살이

· 씨래

· 평상씨래

· 회전씨래


· 쇠스랑


· 골방메


· 발고무래


· 가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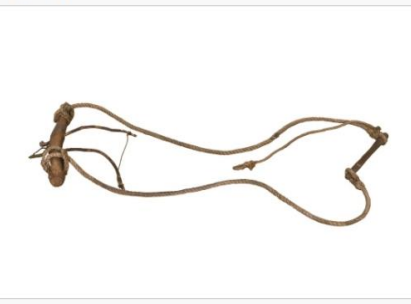






>

- 굽쟁기와 명에



쟁기 길이 146cm | 보습 길이 22cm 폭 21.5cm | 벚 길이 36cm | 명에 길이 62cm

쟁기는 논밭을 갈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쟁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습으로 밭을 갈 때는 역발을 한다. 길쭉한 쟁기를 한쪽으로 떠넘길 수 있도록 보습 위쪽에 벚을 달았다. 보습과 벚을 지탱하는 부분을 솜이라 한다. 쟁기는 솜이 모양에 따라 선쟁기·농쟁기·굽쟁기·골방쟁기로 구분된다. 굽쟁기는 작고 가벼운 편만 아니라 가는 힘이 좋고 안 전성이 뛰어나 19세기 말엽부터 유행했다. 쟁기로 하루 1000~1500평의 논밭을 갈 수 있다.

03

디지털 농업실록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